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기획실장 신설·국장 축소되나

통합준비실무단, 조직 규모·기능 변화 집중 논의 부교육감 2인 체제...국 축소 시 승진 직제 우려도

전남·광주 교육청 통합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 이후 부교육감 수와 임명 방식, 기획실장 신설 여부, 국(局) 체제 변화가 주요 관심사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

르면 교육부와 함께 통합준비실무단을 구성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통합교육청의 조직 규모와 체제를 논의 중이다. 현재 두 교육청은 각각 부교육감 1명과 3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력 규모는 광주 약 2만명, 전남 약 3만3000명 수준이

다. 통합 시 총 인원은 5만3000여명에 달해 전국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많은 거대 교육청으로 재편된다. 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은 부교육감 2인 체제 도입과 기획 기능 강화 여부다. 통합교육청은 부교육감 2명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인사 방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부교육감 2명 가운데 1명을 교육청

추천 인사로 채용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1명은 교육부에서, 다른 1명은 경기도교육청 추천인사를 국가직으로 전환해 임명하고 있는데, 통합교육청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실장 신설 여부도 주요 변수다. 해당 직위가 도입될 경우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방식 역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참고할 가

능성이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만 기획실장이 있으며 부교육감처럼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부 인사로 채용되고 있다. 국 단위 조직 개편 방향은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두 기관이 각각 3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단순 합산 시 6국이 되지만, 실제 조직은 효율화 차원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4국 수준으로 재편될 경우 고위직 자리가 줄어 승진 정체가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중간·하위직 인사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실무를 맡고 있는 양 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조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 임명 방식과 기획실장 신설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조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민

“위기이지만 기회...대한민국 경제 근본적 변화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관련 “언제 정리될지 알기 어려워” “공동체 위해 노력한 위대한 국민...새 도약 시스템 구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현재의 국제정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차 전체회의에

서 이같이 진단한 뒤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또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기회를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잇달 표심 다지기 나선 정청래 광양 포스코 ‘7000명 직접고용’ 칭찬 광주 양동시장선 “선거만 생각하면 피말라”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곳곳을 누비면서 ‘잇달 단속’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8면 정청래 대표는 9일 오전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이회근 포스코 사장, 고재운 광양제철소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공개 칭찬하고 싶다”며 “(이번) 고용으로 포스코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직접적인 이윤 창출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 이어 여수 전통시장인 서시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상인·시민들과 만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통 등 민심을 청취했다. 이후 광주로 이동해 양동시장을 찾은 정 대표는 “우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밤잠을 못 지니 국민이 편하고, 저는 선거만 생각하면 피가 마른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관세 장벽 등으로 철강산업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행히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유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었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경밀착’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도 운동권 출신이고, 대기업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고 인식했는데 지금은 인식을 달리한다”고 언급한 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 시민이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자 “우짜 쓰까임 (어떻게 해야 될까)”이라고 했다. 이 시민이 이어 “법을 바꿔버려 (바꿔버려)”라고 하자 정 대표는 웃으면서 엄지를 들었다. 정 대표는 10일엔 담양 창평전통시장을 찾은 뒤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그는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방침을 거론, “이것은 진짜

민주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3선’ 전현희·박주민에 승리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9일 전현희·박주민(이상 기호순) 의원을 꺾고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소명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정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분경선을 진행했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보좌관으로 여의도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풀뿌리 지방행정가로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며 3선을 지냈다. 구청장이던 정 후보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계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평가가 꼽힌다. 연합뉴스

여수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지난해 대비 3개월 이상 빨라져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최근 호남권 권역구역 내 모기 감시지점인 여수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호남권역 내 주요 권역구역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모기) 서식 및 분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남권 권역구역 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3개월 이상 빨라졌다. 지난 2024년에는 5월 8일, 2023년에는 6월 26일, 2022년에는 7월 19일에 발견됐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개모기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0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전남도 “농자재 수급 상황 안정”...사재기 자제 당부

면세유 최대 27% ↑·필름 40% 급등...농가 부담 확대 비료·필름 공급량 충분...농협 발주 제한 등 대응 강화

전남도가 중동 정세 여파로 농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이후 유종별로 16.9~27.4% 올랐고, 농협 계통 무기질 비료 가격도 전년 대비 6.0~8.8% 상승했다. 농업용 필름은 나프타 원료 수급 차질로 30~40% 급등하며 농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도는 지난 4~5일 장성 황룡농협 농자재센터와 여수 남해화학을 찾아 면세유, 농업용 필름, 비료 원료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3월 말 기준 농자재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자물용 멀칭 필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117.1% 수준으로 공급됐고, 무기질 비료 역시 54.5% 초과 공급돼 영농 준비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선구매가 늘면서 공급량 증가가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가수요’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선구매가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도 대응에 나서 4월부터 지역농협 발주 물량을 전년도 실수요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남해화학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루나리와 베트남 등으로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7월까지 요소와 복합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 국비 지원과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99억원, 농업용 필름 원료 우선 배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현재 농자재는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필요 물량 중심 구매로 수급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호성·유기질 비료 확대와 토양 검정 기반 시비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탄소축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농자재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인천국제공항’서 계속

‘광주공항~인천국제공항’ 직항로는 오는 7월이 유력해 보인다. 제주공항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직항로를 시범 개설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정준호 의원은 “직항로 개설을 최대한 앞당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노선과 전세기 운항에 소모되는 예산은 무안국제공항 폐쇄에 따른 지원금과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관광정책회의에서 광주공항을 언급하며 “인천

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무안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 광주공항에서 한시적으로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난해 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무산됐다.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이 운항된다면 관련 시설을 신설해 본격 운영을 준비하기까지 1년 여의 시간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국제공항 직항로가 개설되면 지난 2024년 사고 직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김포공항을 경유하거나 직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겪어온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